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 이해 연구

이 해 영

Abstract

Lee, Haiyoung. 2013. 10. 31. **A Study of L1 Thai speakers' understanding on Korean supposition expression.** *Bilingual Research* 53, 217-239. When people communicate, they can convey what they mean without using direct and explicit expressions. However, indirect use of the language might cause a pragmatic failure to the spea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It might be incompatible with the economic use of language when we consider the usual mechanism of understanding and speaking. Compared with the direct use of language expression, indirect expression requires more efforts not only on the side of speakers but also on the side of listeners while they analyze the message. Also, it causes much higher tension on the part of the speakers since the message could be delive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isteners' cultural background. The L2 learners of Korean often find the indirect expression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instance, when a supposition expression that Koreans use frequently are used in a different meaning rather than the supposition itself, then L2 learners feel it confusing.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ai speakers of Korean showed different degree of understanding on the indirect supposition expression and direct expression, and whether there existed the variation of language proficiency and learning effect. **(Ewha Womans University)**

【Key words】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s), 공손성(politeness), 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s),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 한국어 추측 표현(Korean supposition expression), 함축(implicature),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

1. 서론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이재희 외, 2011: 18).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s)나 함축(implicature)은 바로 이러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언어 사용을 말한다. 간접적인 언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의 이해에 비해 어렵지만, Yule(1996: 5)의 언급처럼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속된 집단에서 기대되는 행동 유형을 따르기 때문에 간접적인 언어 사용은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용적 현상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일 것이다(이해영, 2002 :52; 이정란, 2011: 317). 서로 다른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화자들에게 간접 표현은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표현에 비해 간접적인 표현은 발화의 단계에서는 물론 해석의 단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간접적 표현 습득의 어려움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 Bouton(1994: 100)은 함축과 같은 간접 표현에 대한 교육 없이 학습자들이 함축 표현에 대한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4년 반의 시간이 걸렸으며, 특정한 함축의 유형들은 여전히 문화 간 상호작용의 장애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Kecskes(2000: 152-153)도 학습자들이 직접적 의미를 관용적 의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한 화용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황 관련 발화를 이해하거나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와 다른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간접적 표현의 습득은 숙달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주목되어 왔다.

Kecskes(2000: 152-153)는 고급의 숙달도를 가진 아시아계 학습자들이 관용적인 의미 이해를 잘했다고 하였다. Félix-Brasdefer(2007: 266-267)도 숙달도가 요청 화행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 숙달도 발달에 따라 직접적 요청의 사용은 줄어들었으며, 관습적 간접 화행의 사용은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Garcia(2004: 103)는 간접 화행의 종류(요청, 제안, 수정, 제공)에 따라 숙달도가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듣기 시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화행의 종류별로 보면, Garcia(2004)가 설정한 세 집단 즉, 숙달도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과 모국어 화자 집단 모두 제안, 수정보다 요청 화행을 더 쉽게 알아차렸고, 각 화행에 대한 집단 내 차이는 숙달도가 낮은 집단에서 가장 컸다고 한다. 이는 간접 화행의 내적인 차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어 습득론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관점의 연구인 이정란(2011: 209)은 추측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제안 화행과 거절 화행을 수행할 때의 화용 능력이 의무, 희망, 의도의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요청 화행을 수행할 때의 화용 능력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추측 양태 표현이 사용된 여러 간접 화행에 대한 비교보다는 간접 화행으로서의 양태 표현 전반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간접 표현 습득과 관련된 연구들은 거주 기간을 주목하고 있다. Kasper & Rose(2002: 191-236)에서는 학습 환경의 차이가 언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¹⁾ 그러나 Félix-Brasdefer(2004)는 거절 화행에서의 공손성 전략(politeness strategies) 사용 양상 고찰을 통하여 화용 발달에 거주 기간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주 기간이 길수록 협상에 대한 시도가 많아졌고, 특히 완화 장치 사용 빈도도 높아져 모어 화자에 가까운 간접성을 보였다라고 한다. Taguchi(2011: 926)에서도 거주 경험은 간접적 거절에는

1) 가령, Kecskes(2000:158-159)는 간접 표현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 기간보다 문화적으로 가까운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함축과 상투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거주 기간과 관련해서 거주 기간과 숙달도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Xu et al.(2009: 214)도 거주기간과 숙달도는 L2 화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숙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해영(2011: 354)은 거주의 질적 측면이나 습득되는 항목에 따라 거주 기간의 영향력이 달라짐은 물론, 특정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거주 기간이 변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행의 연구들을 볼 때 간접적 표현의 습득은 언어 능력 발달이나 거주의 경험 등이 요구되고, 직접적인 표현의 습득에 비해 어려운 학습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 학습자에게도 간접적 표현의 습득은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s)로 사용된 추측 표현과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s)로서의 추측 표현에 대한 태국인 학습자의 이해의 정도를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자료와 비교하여 변이의 원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추측 표현이 언표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와 언표내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이해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한국인과 태국인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간접 화행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 (3) 태국인 숙달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추측 표현의 이해에 있어 한국인과 차이를 보이는가?
- (4) 추측 표현이 사용된 간접 화행의 이해는 숙달도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2. 연구 방법

2.1. 실험 참여자

본 실험에서 태국인 118명과 참조 집단으로 한국인 51명이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태국인 참여자들은 태국 방콕을 중심으로 세 개의 대학교로부터 표집 되었으며, 설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학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대상이었다. 태국인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숙달도는 20점 만점에 10.7점이었고 표준편차는 3.60이었다. 숙달도 평가는 숙달도 별 상하위 집단 비교를 위하여 실시하였고, 숙달도 별 상하위 집단은 숙달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34명씩으로 구성되었다.²⁾

실험 참여자들의 한국 평균 거주 기간은 3.9개월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3.90이었다. 평균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 거주 기간에서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없었던 시간은 제외하였다. 화용 능력에는 숙달도보다 체류 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Bouton, 1994)에서 더 나아가 체류 기간보다 체류하는 동안 목표어 환경 내에서 얼마나 질적인 상호작용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견해(Kasper & Rose, 2002; Bardovi-Harlig & Bastos, 2011)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거주기간을 변수로 볼 때 단순 체류 기간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했다.

2) 상하위 집단은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가 1차 선택되었고, 동점자를 포함시키니 각 집단에 34명씩 배치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각각 상위 28.8%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42.3%의 피험자 자료는 상하위 집단간 평균 검정을 위해서 배제되었다.

2.2.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실험 도구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숙달도 평가자이고 다른 하나는 추측 표현 이해 검사를 위한 MCQ(multiple choice questionnaire)이다.

숙달도 평가자는 숙달도 상하위 집단의 평균 점정(연구 문제 3)을 위한 집단 구분에서도 사용되었고, 숙달도와 거주 기간이 추측 표현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연구 문제 4). 숙달도 평가는 TOPIK ‘어휘와 문법’, ‘읽기’에서 총 20문제가 추출되었다(이해영, 2011). 실험 참여자들의 언어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서, 문항은 주로 중급과 고급 문제에서 추출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숙달도 평가자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862로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높았다.

두 번째 사용된 도구는 추측 표현 이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MCQ(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설문지로 모든 연구 문제에서 활용된다. MCQ 설문지는 선다형 문제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추측 표현이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항(3개), 거절(3개), 반대(3개), 조언(2개), 불평(2개), 요청(3개) 등 간접 화행으로 사용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에, 혼란 항목(이해영 외, 2005: 87) 4문항을 더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지는 상황 개요가 제공되지 않아도 이해에 무리가 없는 대화를 제시하여 구성하였다. Kasper & Rose(2002: 87)에서는 초중급 대상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의 언어 능력이 실험 도구에 사용된 언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본고의 실험 참여자는 중고급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MCQ 설문의 개요와 응답 방법 소개는 태국어로 제시하고 MCQ 문항의 선택지 또한 아래와 같이 태국어를 병기하였다.

8. ()

A: 이번 주 토요일에 바빠? 오후에 일하는 거 좀 도와줄래?
 B: 이번 주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숙제가 좀 많아서.

① 거절(การปฏิเสธ) ② 요청(การขอเรื่อง) ③ 추측(การคาดคะเน) ④ 잘 모르겠음(ไม่ทราบ)

<자료 1> MCQ 문항 예시

작성된 MCQ 설문지는 한국어 습득론 전공생인 태국인 박사생과 한국인 박사생의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항을 1차 수정하였고, 한국인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 제거하여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MCQ 16개 문항의 문항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762로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높았다.

2.3.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는 2013년 5월-7월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5월에는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높였고, 6-7월에 걸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별로 수집 내용이 달랐는데, 참조 집단인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추측 표현 이해 검사를 위해 MCQ 설문을 실시했고,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추측 표현 이해 검사를 위한 MCQ와 함께 숙달도 평가를 모두 실시하였다. 태국인 학습자들은 대부분 태국 대학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 문제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추측 표현이 언표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와 언표내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구분하여 한국인과 태국인의 평균 차이를 t 검정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언표적 행위로 사용된 추측 표현과 언표내적 행위로 사용된 추측 표현에 대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의 정도가 한국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간접 화행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정도는 한국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t 검정으로 분석했다. 연구 문제 1과 다른 점은 연구 문제 1이 간접 화행 전체를 비교했다면, 연구 문제 2는 간접 화행의 종류별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숙달도 평가를 통해 상위 집단(28.8%, 34명)과 하위 집단(28.8%, 34명)의 두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들 두 집단과 한국인 집단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 연구 문제는 추측 표현이 사용된 간접 화행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것처럼 숙달도와 거주 기간에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숙달도와 거주 기간을 독립 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언표적 의미와 언표내적 의미의 이해

연구 문제 1. 추측 표현이 언표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와 언표 내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이해에는 차이가 있는가?

전술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간접 화행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비해 이해하기 어렵다.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추측 표현 또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비해, 간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였다. 연구 문제 1에서는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점수는 비교를 위

해 10점 만점으로 변환하였다.

아래 <표 1>은 집단별(한국인, 태국인) 추측 표현 이해에 대한 t 검정 결과이다.

<표 1> 집단별 추측 표현 이해에 대한 t 검정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통계값	유의 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언표적	한국인	51	9.9	.65	6.62	.000	2.15	.33
	태국인	118	7.7	3.40				
언표내적	한국인	51	9.0	.86	9.56	.000	1.91	.20
	태국인	118	7.1	1.72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추측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언표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 한국인은 평균 9.9(표준편차 .65)이며, 태국인은 평균 7.7(표준편차 3.40)이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6.62,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측 표현이 간접적 의미인 언표내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 한국인은 평균 9.0(표준편차 .86)이며, 태국인은 평균 7.1(표준편차 1.72)이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9.56,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³⁾ 즉, 언표적 행위나 언표내적 행위 모두에 있어서 태국인과 한국인의 추측 표현 이해에 대한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 간접 화행의 종류별 의미 이해

연구 문제 2. 한국인과 태국인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간접 화행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3) Leven의 등분산 검정을 해 본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의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 2에서는 간접 화행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 정도는 한국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t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화행의 종류에 따라 태국인 학습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되는 화행이 있다면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2>는 간접 화행 종류에 따른 집단별(한국인, 태국인) 추측 표현 이해에 대한 기술통계와 t 검정 결과이다.⁴⁾

<표 2> 간접 화행 종류에 따른 집단별 추측 표현 이해 t 검정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통계값	유의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거절	한국인	51	9.9	.46	7.86	.000	2.27	.29
	태국인	118	7.7	3.06				
반대	한국인	51	6.1	3.32	2.59	.010	1.31	.50
	태국인	118	4.8	2.86				
조언	한국인	51	9.6	1.36	4.77	.000	1.51	.32
	태국인	118	8.1	2.77				
불평	한국인	51	10.0	.00	7.96	.000	2.33	.29
	태국인	118	7.7	3.18				
요청	한국인	51	9.9	.65	8.93	.000	2.19	.24
	태국인	118	7.8	2.38				

<표 2>를 보면, 추측 표현이 거절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태국인은 평균 7.7(표준편차 3.06)이며, 한국인은 평균 9.9(표준편차 .46)이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7.86,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측 표현이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태국인은 평균 4.8(표준편차 2.86)이며, 한국인은 평균 6.1(표준편차 3.32)로, 평균값도 다른 간접 화행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컸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

4) Leven의 등분산 검정 결과, ‘반대’를 제외한 나머지 화행은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경우의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2.59, 유의확률은 .01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언의 경우 태국인은 평균 8.1(표준편차 2.77)이며, 한국인은 평균 9.6(표준편차 1.36)이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4.77,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불평의 경우는 태국인은 평균 7.7(표준편차 3.18)이며, 한국인은 평균 10.0(표준편차 .00)으로 두 집단의 평균차가 가장 컸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수에 차이는 t 통계값은 7.96,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청은 태국인은 평균 7.8(표준편차 2.38)이며, 한국인은 평균 9.9(표준편차 .65)이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점수에 차이는 t 통계값은 8.93,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간접 화행의 종류별로 보았을 때 태국인과 한국인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 화행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국인과 달리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표 1>과 <표 2>를 보면, 집단 간(태국인, 한국인)의 평균차가 반대와 조언의 경우 다른 간접 화행의 평균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치가 작았고 심지어는 추측의 경우보다도 작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요청, 거절, 불평 화행은 추측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의 평균차가 컸다.

<표 2>의 기술통계 내용을 보면, 태국인은 조언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고, 요청과 거절, 불평에 대한 이해도 언표적 의미로서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의미 이해와 비슷한 평균값을 보였으며 단지 반대의 경우만 매우 낮았다. 이는 학습(또는 훈련)의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령, 설문지에 사용된 추측 표현(‘-는 게 좋겠어요, -는 게 좋지 않겠어요?, -는 게

좋지 않을까요?’ 등)이 한국어 교실에서 자주 제안되는 완곡한 조언의 표현과 같았다는 점은 학습자들에게 완곡한 조언이 항상 추측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학습의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요청의 경우에도 교실 학습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설문지에서 사용된 표현의 유사성으로 훈련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그 완곡함과 간접성의 정도가 커 한국인에게도 다른 화행에 비해 해석에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3.3. 숙달도 상위 집단, 하위 집단과 한국인과의 비교

연구 문제 3. 태국인 숙달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추측 표현의 이해에 있어 한국인과 차이를 보이는가?

그러면 이번에는 숙달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한국인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2.1.에서 설명했듯이, 태국인 학습자들은 숙달도 평가를 통해서 상위 28.8%(34명)의 상위 집단과 하위 28.8%(34명)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⁵⁾

이렇게 구성된 상위 집단의 숙달도 평가 점수의 평균은 15.2점(표준편차는 2.36)이었으며, 하위 집단의 숙달도 평가 점수의 평균은 6.8점(표준편차는 1.17)으로 상하위 집단 간의 숙달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18.66$, 유의확률 .000). 즉, 두 집단은 숙달도 면에서 서로 다

5) Bardovi-Harlig(1999: 677)에서 실험 집단을 4개의 숙달도 수준으로 나누고 그 중 상위 및 하위 각 25%에 해당되는 집단을 비교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상하위 집단을 나누어 숙달도 차이에 따른 추측 표현의 이해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물론 3.4.에서는 숙달도의 변화가 추측 표현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볼 것이다.

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학습자 집단(상위, 하위)의 추측 표현 이해가 한국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3>은 집단의 평균값을 보여 주는 기술통계이다.

<표 3> 태국인 상하위 집단과 한국인 비교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추측	태국인_하	34	5.9	3.40
	태국인_상	34	9.2	2.01
	한국인	51	9.9	0.65
거절	태국인_하	34	6.6	3.72
	태국인_상	34	8.8	1.80
	한국인	51	9.9	0.46
반대	태국인_하	34	4.4	2.70
	태국인_상	34	5.5	2.60
	한국인	51	6.1	3.32
조언	태국인_하	34	6.8	3.23
	태국인_상	34	9.4	1.64
	한국인	51	9.6	1.36
불평	태국인_하	34	5.7	3.29
	태국인_상	34	9.4	1.64
	한국인	51	10.0	0.00
요청	태국인_하	34	7.1	2.82
	태국인_상	34	8.8	1.60
	한국인	51	9.9	0.65

전반적으로 태국인 상위 집단은 한국인에 가까운 평균 점수를 얻었으며 태국인 하위 집단은 이에 못 미쳤다. 특히 추측, 거절, 조언, 불평의 경우, 태국인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과 차이를 크게 드러내며 한국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추측, 반대, 불평에서 하위 집단은 6점도 안 되는 낮은 점수를, 요청에서는 7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⁶⁾

6) 이는 Garcia(2004)가 숙달도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과 모국어 화자 집단 모두 제안, 수정보다 요청 화행을 더 쉽게 알아차렸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위의 세 집단(태국인 상위 집단, 하위 집단, 한국인)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했다. <표 4>는 집단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표이다.

<표 4> 태국인 상하위 집단과 한국인 비교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추측	집단-간	345.12	2	172.56	37.37	.000
	집단-내	535.70	116	4.62		
	합계	880.82	118			
거절	집단-간	231.55	2	115.78	23.39	.000
	집단-내	574.07	116	4.95		
	합계	805.62	118			
반대	집단-간	57.45	2	28.72	3.28	.041
	집단-내	1015.92	116	8.76		
	합계	1073.36	118			
조언	집단-간	186.42	2	93.21	20.61	.000
	집단-내	524.51	116	4.52		
	합계	710.92	118			
불평	집단-간	401.37	2	200.68	52.33	.000
	집단-내	444.85	116	3.84		
	합계	846.22	118			
요청	집단-간	160.79	2	80.40	25.32	.000
	집단-내	368.34	116	3.18		
	합계	529.13	118			

세 집단(태국인 상하위 집단, 한국인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추측은 37.37,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집단 간 추측 표현 이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또한 거절은 F 통계값이 23.39, 유의확률 .000으로서, 반대는 F 통계값이 3.28 유의확률 .041으로서, 조언은 F 통계값이 20.61, 유의확률 .000으로서, 불평은 F 통계값이 52.33, 유의확률 .000으로서, 요청은 F 통계값이 25.32, 유의확률 .000으로서, 집단 간 추측 표현 이해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다. 즉 <표 3>의 기술 통계 내용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어떤 집단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 분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고는 사후비교분석(Dunnett T3)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5>는 <표 4>에서 밝혀진 집단의 차이가 어느 집단으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는 사후비교분석표이다.

<표 5> 분산분석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집단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추측	태국인 하 vs 태국인 상	-3.33(*)	0.68	0.00
	태국인 하 vs 한국인	-3.98(*)	0.59	0.00
	태국인 상 vs 한국인	-0.65	0.36	0.21
거절	태국인 하 vs 태국인 상	-2.26(*)	0.71	0.01
	태국인 하 vs 한국인	-3.36(*)	0.64	0.00
	태국인 상 vs 한국인	-1.10(*)	0.32	0.00
반대	태국인 하 vs 태국인 상	-1.09	0.72	0.29
	태국인 하 vs 한국인	-1.68(*)	0.66	0.03
	태국인 상 vs 한국인	-0.58	0.66	0.65
조언	태국인 하 vs 태국인 상	-2.65(*)	0.62	0.00
	태국인 하 vs 한국인	-2.84(*)	0.59	0.00
	태국인 상 vs 한국인	-0.20	0.34	0.92
불평	태국인 하 vs 태국인 상	-3.68(*)	0.63	0.00
	태국인 하 vs 한국인	-4.26(*)	0.56	0.00
	태국인 상 vs 한국인	-0.59	0.28	0.12
요청	태국인 하 vs 태국인 상	-1.77(*)	0.56	0.01
	태국인 하 vs 한국인	-2.81(*)	0.49	0.00
	태국인 상 vs 한국인	-1.04(*)	0.29	0.00

<표 5>의 평균차에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세 집단(태국인 상, 하, 한국인)의 추측 표현 이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태국인 상위 집단이 한국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태국인 하위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는 유형으로 추측, 조언, 불평 화행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태국인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이나 한국인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거절, 요청 화행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 유형은 태국인 상위 집단이 통계적으로 한국인보다도 평균 차이가 없으며 태국인 하위 집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유형으로 반대 화행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3.4. 숙달도와 거주 기간에 따른 비교

연구 문제 4. 추측 표현이 사용된 간접 화행 이해는 숙달도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3.3.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이 참조 집단인 한국인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해 보았다면, 3.4에서는 숙달도와 거주 기간이 추측 표현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두 개의 독립변수(숙달도 평가 결과와 거주 기간)가 종속변수(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숙달도는 2.2에서 설명했듯이, 신뢰도가 검증된 숙달도 평가(Cronbach의 알파계수 .862)를 사용했고, 거주 기간은 학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통해 수집된 거주 기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 결과 거주 기간은 유의하지 않아 자동으로 변수에서 제거되어, 아래의 <표 6>과 <표 7>의 결과를 얻었다.

<표 6>은 추측 표현 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분산분석 표이고, <표 7>은 추측 표현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118$)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추측	선형회귀분석	207.623	1	207.623	21.09	.000
	잔차	1142.043	116	9.845		
	합계	1349.666	117			
R 제곱(수정된 R 제곱) = .154(.147)						
거절	선형회귀분석	91.428	1	91.428	10.54	.000
	잔차	1005.953	116	8.672		
	합계	1097.381	117			
R 제곱(수정된 R 제곱) = .083(.075)						
조언	선형회귀분석	101.283	1	101.283	14.78	.000
	잔차	794.692	116	6.851		
	합계	895.975	117			
R 제곱(수정된 R 제곱) = .113(.105)						
불평	선형회귀분석	208.908	1	208.908	24.85	.000
	잔차	975.203	116	8.407		
	합계	1184.11	117			
R 제곱(수정된 R 제곱) = .176(.169)						
요청	선형회귀분석	47.891	1	47.891	9.02	.003
	잔차	615.704	116	5.308		
	합계	663.595	117			
R 제곱(수정된 R 제곱) = .072(.064)						

숙달도와 거주 기간 두 개의 독립변수로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거주 기간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숙달도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의 회귀 모형에 대해 분산분석표를 보면 추측의 F 통계값은 21.09, 유의확률은 .000으로 숙달도는 유의수준 .05에서 언표적 의미로 사용된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추측 의미 이해 총변화량의 15.4%(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14.7%)가 숙달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불평은 F 통계값 24.85, 유의확률 .000으로, 숙달도는 유의수준 .05에서 불평 화행으로 사용된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거절 화행 이해의 총변화량의 17.6%(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16.9%)가 숙달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언의 의미로 추측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숙달도의 영향력은 추측이나 불평에 비해 낮았다. 조언은 F 통계값 14.78, 유의확률 .000으로, 숙달도는 유의수준 .05에서 조언의 의미로 사용된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조언 의미 이해의 총변화량의 11.3%(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10.5%)가 숙달도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거절은 F 통계값 10.54, 유의확률 .000으로, 숙달도는 유의수준 .05에서 거절 화행으로 사용된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거절 화행 이해의 총변화량의 8.3%(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7.5%)가 숙달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어 요청과 함께 다른 간접 의미로 사용된 것보다 숙달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요청은 F 통계값 9.02, 유의확률 .003으로, 숙달도는 유의수준 .05에서 요청 화행으로 사용된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요청 화행 이해의 총변화량의 7.2%(수정된 결정계수에 의하면 6.4%)가 숙달도에 의해서 설명되었을 뿐이다.

정리하면, 회귀 모형에 의하면 숙달도는 학습자가 추측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간접 화행의 종류에 따라서 숙달도의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숙달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불평이었고, 그 다음은 추측, 그리고 거절과 요청의 순이었다. 이는 요청이 하위 집단 학습자들에게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각 화행 이해에 미치는 숙달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표 5>를 보면 상위 집단으로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목표어에 더 접근한 경우는 즉, 숙달도의 변화량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는 거절과 요청보다 추측, 조언, 불평 화행에서였다.

추측 의미 이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별 독립변수(숙달도와 거주 기간)의 종속변수인 추측 표현의 의미 이해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숙달도만이 영향을 주었다.

<표 7> 중다회귀분석($n=118$)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추측	숙달도	3.75	.91		4.12	.000
	(상수)	.74	.16	.39	4.59	.000
거절	숙달도	5.03	.85		5.89	.000
	(상수)	.49	.15	.29	3.25	.002
조언	숙달도	5.32	.76		7.01	.000
	(상수)	.52	.13	.34	3.85	.000
불평	숙달도	3.69	.84		4.39	.000
	(상수)	.74	.15	.42	4.99	.000
요청	숙달도	5.85	.67		8.75	.000
	(상수)	.36	.12	.27	3.00	.003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선행 연구와 달리 거주 기간은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마도 이는 실험 참여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3.9개월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3.90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평균 거주 기간을 계산 할 때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상호작용이 없는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지만, 짧은 평균 거주 기간은 의미 기능이나 화용의 습득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이전으로 보인다. 이해영(2011: 356)에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의 경우 거주 기간이 양태 습득에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는데, 짧은 기간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지 앞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적 시점은 학습 항목이 무엇인지 즉, 문법 항목인지, 화용 현상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날 것이다.

4.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추측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언표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와 간접적 의미를 나타내는 언표내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서 본고는 실험 집단으로 태국인 대학생 118명과 참조 집단으로 한국인 51명을 실험 참여자로 하여 통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1) 추측 표현이 언표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와 언표내적 행위로 사용된 경우,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이해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한국인과 태국인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간접 화행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3) 태국인 숙달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추측 표현의 이해에 있어 한국인과 차이를 보이는가? (4) 추측 표현이 사용된 간접 화행 이해는 숙달도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 결과, 태국인 학습자들은 추측 표현이 언표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언표내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비해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조 집단과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언표내적 의미 이해가 언표적 의미 이해에 비해 평균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이에 언표내적 의미로 사용된 추측 표현을 간접 화행의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간접 화행의 종류에 따라 태국인과 한국인의 추측 표현에 대한 이해는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인과 태국인의 간접 화행 이해에 대한 평균차를 비교했을 때, 반대와 조언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치가 작았는데, 심지어는 추측의 경우보다도 작았다. 수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태국인과 한국인의 평균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요청, 거절, 불평 화행은 추측과 비교했을 때 태국인은 한국인과의 평균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간접 화행에 대한 학습자의 높은 이해는 훈련의 효과로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태국인 교수와의 사후 면담을 통해서 요청과 거절은 물론 특히 조언의 경우, 한국어 교실에서의 훈련 효과가 크게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간언어 연구에서는 모국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오류 분석의 초기에 대두되었던 훈련의 영향 또한 변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숙달도의 차이는 추측 표현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다. 추측과 조언, 불평에서 상위 집단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평균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집단 학습자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 거절과 요청은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 및 한국인 집단 모두와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대의 경우는 간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과 한국인 집단의 사이에 넓게 분포하였으며, 집단 차이는 하위 집단과 한국인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 태국인 상위 집단은 추측, 조언, 불평 화행을 이해함에 있어 한국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인 숙달도의 영향력 검정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거절과 요청의 경우는 숙달도가 높아져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간접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반대의 경우 학습자들은 숙달도에 상관없이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에게도 어려웠으며,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간접성이 증가되는 완곡한 요청이나 거절의 경우는 체면 위협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어 화자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거나 이해하려면 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훈련의 효과가 있었던 요청과 거절에서도 상위 집단 학습자가 한국인과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간접 화행 습득의 난이도를 통계 검증하면 등급화(grading)의 측면에서 교실 적용에 더욱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본고에서는 설문 문항의 개수가 적어 화행의 차이에 대한 통계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고 평균차를 통해 해석하였다. 간접 화행별, 공손성(politeness)에 따른 전략별 표현이 분석된다면 화용론적 현상도 문법 항목처럼 학습 목록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거주 기간의 결정적 시점을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의 연구들은 단순 거주 기간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정란(2011). 한국어 학습자의 양태 표현 습득에 나타난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관계 연구, 이화여대 한국학과 박사 논문.
- 이정란(2011).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생산 능력과 이해 능력 비교 -추측, 희망 표현의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297-319.
- 이재희 외(2011). 영어교육을 위한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혜영(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46-70.
- 이혜영(201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335-360.
- Bardovi-Harlig, K.(1999), Exploring the interlanguage of interlanguage pragmatics: A research agenda for acquisitional pragmatics, *Language Learning*, 49, 677-713.
- Bardovi-Harlig, K., & Bastos, M. T.(2011). Proficiency, length of stay, and intensity of interaction and the acquisition of conventional expressions in L2 pragmatics. *Intercultural Pragmatics*, 8, 347-384.
- Blum-Kulka, S., & Olshtain, E.(1986). Too many words: Length of utterance and pragmatic failur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 165-180.
- Bouton, L. F.(1994). Can NNS skill in interpreting implicatures in American English be improved through explicit instruction? A pilot study. In L. F. Bouton & Y. Kachru(Eds.),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Vol. 5,

-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Division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88-109.
- Dietrich, R., Klein, W., & Noyan, C.(1995). *The acquisition of temporality in a second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 Garcia, P.(2004).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Speech Act Recognition: A Pragmatic Awareness Study, *Language Awareness*, 13(2), 96-115.
- Félix-Brasdefer J. C.(2004). Interlanguage refusals: Linguistic politeness and length of residence in the target community, *Language Learning*, 54(4), 587-653.
- Kasper, G. & Rose, K.(2002). *Pragmatic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Malden, MA: Wiley-Blackwell.
- Kecskes, Istvan.(2000). Conceptual fluency and the use of situation-bound utterances in L2, *Links & Letters*, 7, 145-161.
- Taguchi, N.(2011). The Effect of L2 Proficiency and Study-Abroad Experience on Pragmatic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61(3), 904-939.
- Xu, W., Case, R. E., & Wang, Y.(2009). Pragmatic and grammatical competence, length of residence, and overall L2 proficiency, *System*, 37, 205-216.
- Yule, G.(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이해영(Lee, Haiyoung)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번호: 02-3277-2106

전자우편: youngewha@ewha.ac.kr

접수일자: 2013년 8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9월 8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16일